

일본 2006년 수산예산 2,635억 2,400만엔

전년대비 3.8% 감소, 중점 요구 사항은 부활

일본의 2006년도 수산예산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2천6백35억 2천4백만엔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역을 살펴보면 비공공 부분이 9백16억1백만엔(전년대비 99%), 공공부분이 1천7백19억2천3백만엔(94.8%)을 차지했다.

이 중 중점 부활 요구 대상인 대형 해파리의 국제공동조사, 어선의 고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 어업공제부금 추가조성 등에 25억5천만엔이 배정되었다.

수산업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대형 해파리의 발생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과 어선의 고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 위성을 이용한 어장탐색 효율화 등의 연료 고가 대책에 13억2천3백만엔을 책정했다.

이와함께 국제화에 대응한 김양식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구형설비의 폐기 등에 6억8천만엔을 투입하고 대형자동건조기나 고성능 채취선의 도입 교부금, 김양식 고도화 촉진 모델사업 예산도 확보하였다.

어협의 체질강화를 위한 인정어협 자금 융통 원활화사업에 9천만엔, 신규취업자 확보 및 육성지원사업에 2억엔을 계상하였다.

어업공제의 기반강화사업에 12억5천만엔이 확보되었고 농림수산물 수출증가 추진사업, 해외보급대책사업, 해외판로 창출 확대사업에 총 9억7백만엔이 책정되었다.

안전 안심대책으로 수산물 품질관리 대책 추진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여 1억2천

2백만엔을 확보되었고 수산자원의 적절한 확보·관리와 기르는 어업의 추진과 관련해 계속사업으로 27억3천6백만엔을 투자키로하고 신규로 조장자원조사에 1억5천만엔을 첨부하였다.

이와함께 沖の鳥(오키노토리)섬의 산호 조사비에 3억엔이 계상되었고 낙도교부금이 17억2천5백만엔이 확보됨과 동시에 새로운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환경생태계보전활동조사에도 7천만엔이 계상되었다.

(단위 : 백만엔)

구 분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일반회계 합계	273,823	263,524	96.2%
비 공공부문	92,507	91,601	99.0%
공공부문	181,316	171,923	94.8%
일반공공	180,316	171,923	94.8%
- 수산기반정비	168,884	159,904	94.7%
- 어항해안	11,236	10,906	97.1%
재해복구	1,196	1,113	93.1%

일본 '미래에 남기고 싶은 어업어촌 역사문화 재산 100선' 선정

일본 수산청은 지난 2월 17일, 도시어촌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미래에 남기고 싶은 어업어촌 역사 문화 재산 100선'을 결정했다.

100선에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 40개 도도부현의 어촌 역사 전통 문화, 전통 어업, 어업사에 남는 사건, 어업인과의 연고, 전설·고사에 관한 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일본 수산청은 향후 가이드를 겸한 책자를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